

## 『조선어문』 제재 수록 양상 연구\*

- 극문학 제재 현황을 중심으로 -

윤금선\*\*

## 〈차례〉

1. 머리말
2. 교육과정의 변화와 『조선어문』 교재
  - 2.1. <조선어문과정표준>의 교육 목표
  - 2.2. 교재의 구성 및 극문학 체계
3. 극문학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
  - 3.1. 민족극 : 한민족 극본 제재와의 상관성
  - 3.2. 해외극 및 중국극 : 서구극 편향화와 이념성
4. 맺음말

## 〈국문초록〉

이 연구에서는 조선족의 국어교육 교재인 『조선어문』을 대상으로 극문학 체계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고찰했다. 실제 분석에서는 극문학의 성격상 1. 민족극, 2. 해외극, 3. 기타 중국극 등 유형별로 고찰하였다.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일종의 예비고찰로서 『조선어문』 교재의 특징에 대해 살피고 극문학 체계의 유형을 정리하였으며, 둘째, 위의 교재의 특징 및 체계의 유형을 토대로 『조선어문』의 극문학 내용 및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2007년에 조선족의 조선어 교육 과정인 <조선어문과정표준>이 개정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변화된 사회 환경과 조선어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였으며, 특히 한국의 제7차 국어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편찬되었다. 이에 따라 민족교육의 단일 교재인 『조선어문』도 새로운 교육과정을 반영하며 개편되었다. 극문학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보면, 1. 민족극은 장르상 희곡, 방송극, 뮤지컬, 가극 등으로 대별된다. 희곡의 경우, 국내 국어 교과서 극본과 학습 문제를 그대로 차용한 단원들이 보이는데, 이는 한국의 7차 교육과정과의 영향 관계를 보여준다. 2. 방송극, 뮤지컬 및 가극 등의 음악극은 각각 1편씩 소수에 불과한데 각각 조선족, 한국, 북한 등에서 창작된 대표작을 수록하고 있다.

학습 활동은 장르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3. 해외극 및 중국극의 경우, 해외극은 전체 극본 유형 중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으며, 영미 희곡이 지배적이다. 또한 감상 위주의 '선택 과장'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어 감상을 위한 간단한 학습 활동만을 보인다.

주제어 : 국어교육, 조선족, 조선어문, 조선어문과정표준, 7차 교육과정기, 극문학, 수록 양상, 학습 활동

## 1. 머리말

중국의 조선족은 18세기 초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에 거주하던 농민들이 중국으로 이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형성되었다. 새로 자리 잡은 터전이 중국 본토인 한민족 이주 집단을 '조선족'이라 통칭했으며, 중국 조선족의 역사는 100여년이 넘었다. 특히 연변 지역은 조선족 밀집지로, 근대 초기부터 국내외 민족운동가들이 민족주의 교육을 비롯해 종교·실업 등 각 방면에 걸쳐 민족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지역이었다.<sup>1)</sup> 그런데 민족교육에서 그 무엇보다 중시된 것이 모국어 교육이었고, 근대로부터 시작된 국어교육의 뿌리는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재 조선족 학교에서는 『조선어문』을 교재로 모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조선어문 교수 자료들, 각종 문법서와 참고서, 교육사, 각종 조선어 교육 학술 논문집이 발간될 정도로 국어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조선족 사회에서의 국어교육은 국내와의 교류 속에서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시점에서, 본고에서는 특히 조선족의 국어교육 교재인 『조선어문』의 극문학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검토하고자 한다.

실제 분석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항을 주목하며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첫째, 일종의 예비고찰로서 2007년 <조선어문과정표준>에 제시

\* 이 논문은 2012년도 동덕여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조교수

1) 윤금선, 「동북아시아 지역 해외 한인의 모국어 교육 활동 연구 - 중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2집, 국어교육학회, 2013, 151면.

된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개정판 『조선어문』 교재의 특징 및 극문학 제재의 유형을 정리할 것이다. 둘째, 위의 교재의 특징 및 제재의 유형을 토대로 『조선어문』의 극문학 내용 및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는 극문학의 성격상 1. 민족극, 2. 해외극, 3. 기타 중국극 등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본고에서는 일련의 연구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조선족 모국어 교육에서 극문학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탐구하게 될 것이다.

본고에서 검토한 텍스트는 현재 조선족이 사용하는 2007년 개정판 『조선어문』으로서, 전(全) 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극문학 제재만을 분석하였으며, 여기에 각 권의 『교수참고서』를 참고하였다. 조선족의 학제는 의무교육 9년과 고급중학교 3년으로 편제되어 있다. 한국의 학제와 비교해보면 의무교육 1~6학년까지는 '소학교'로 초등학교, 의무교육 7~9학년은 '초급중학교'로 중학교, '고급중학교'는 고등학교에 각각 해당된다. 2007년 개편 후 『조선어문』 교재는 1학년부터 9학년까지 상·하권이며 총 18권이다. 고급중학교는 특별히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전자는 4권, 후자는 6권<sup>2)</sup>이다. 필수 과정은 공동 필수 과목으로서 모든 조선족 학생들이 학습하게 되고 선택 과정은 각각 지역의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교육하고 있다.<sup>3)</sup>

해외 한인들에게 있어서 국어교육은 떠나온 조국의 언어인 '모국어 교육'이기도 하다. 언어는 한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는 근간으로서, 자국어어를 잃지 않으려는 이주민들의 국어교육은 국내 국어교육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활동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함께, 해외 한인뿐만 아니라 외국인 대상의 국어교육에도 지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sup>4)</sup> 이러한 가운데 조선족의 국어교육,

2) 선택 과목은 『문법』, 『습작』, 『시가와 수필 감상』, 『소설감상』, 『신문과 전기』, 『희곡 감상』 등 6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3) 이흥남, 「우리나라와 중국 연변 조선족의 초등(소)학교 미술교과서 중 감상영역에 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02, 24면.

특히 『조선어문』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다. 이 연구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극문학 제재로 한정하여 분석을 시도한 시론(試論)에 속한다.

『조선어문』과 관련된 선행 연구는 크게 문법 연구, 교재 연구, 문학 연구로 분류된다.<sup>5)</sup> 특히 본고와 관련된 문학 연구에서는 극본이 아닌 여타 문종을 분석하거나, 극문학을 다룬다 하더라도 개편 전 일부 학년의 극본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비하여 본고는 2007년 교육 개편 후의 교재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 조선족 국어교육 분야에서 극문학 전체를 다룬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본 논문의 의의라 하겠다. 또한 이 연구는 조선족 공교육 내 『조선어문』의 국어 교과서로서의 특성과 가치의 문제를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이 되기도 할 것이다. 비록 본고에서는 한정된 제재만을 분석하나, 이를 통하여 조선족 모국어 교육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 한인의 국어교육을

4) 윤금선, 「미주 지역 한인의 국어교육 전개양상 - 일제강점기 하와이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73집, 어문연구학회, 2013, 5면.

5) 지면상 대표적인 학위논문만을 들어 보면, 크게 조선어문 교재의 문법에 관한 연구, 어휘에 관한 연구, 조선어문 교재에 관한 연구, 조선어문 문학에 관한 연구로 분류될 수 있다. 1. **문법 연구**: 김용선, 「한국 중학교 국어교과서와 중국 조선어문 교과서의 문법영역 비교연구」, 단국대학교 석사논문, 1998; 김화, 「중국 고급 중학교 조선어문 교과서 외래어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논문, 2011; 리영실, 「중국 초급 중학교 조선어문 교과서의 호칭어 연구현황」, 연변대학교 석사논문, 2011; 최화, 「중국 조선어 어휘연구: 중국 조선족 소학교 조선어문 교과서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0. 2. **교재 연구**: 장래필, 「中國 延邊朝鮮族自治州 小學校 朝鮮語文 教科書 內容의 主題 및 價值 分析」,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3; 류성연, 「중국 조선족 조선어문 교과서 분석 연구: 초급중학교 조선어문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석사논문, 1999; 리영실, 「중국 초급 중학교 조선어문 교과서의 호칭어 연구현황」, 연변대학교 석사논문, 2011. 3. **문학 연구**: 이종순,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 연구: 중고등학교 조선어문 과목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02; 박경애,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문 연구: 초급중학교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석사논문, 2006; 김예선, 「고등학교 국어교과서 수록 현대소설 비교연구: 한국·북한 연변을 중심으로」, 광주여자대학교 석사논문, 2009; 주옥, 「조선족 이중 언어교육에서 문학텍스트에 관한 연구: 중국 조선족 중학교 조선어문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2011 등.

포섭하여 우리의 극문학 교육사 및 나아가 국어교육사의 연구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여긴다.

## 2. 교육과정의 변화와 『조선어문』 교재

### 2.1. 2007년 <조선어문과정표준>의 교육 목표

1997년에 편찬된 개편 전 조선어문 교수요강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제정한 ‘어문교학대강(語文教學大綱)’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었다. 이는 중국의 한어문(漢語文)을 조선어로 바꾸어 적용했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국어교과의 교육목표는 초등학교 교육의 기초에서 학생들이 조국의 언어와 문자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용 능력을 점차적으로 높여주려는 데 있었다. 학생들에게 본문과 그에 필요한 국어지식을 학습하도록 지도하며, 현대문(現代文) 독해 능력, 쓰기 능력, 듣기 능력을 신장시키고, 초보적인 문학 감상 능력과 간단한 문어문(文言文) 독해 능력을 구비하도록 하였다.<sup>6)</sup>

그런데 2007년에 들어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조선어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조선어문 교육과정은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를 반영한 <조선어문과정표준>에서는 조선어문학습의 총체적인 교육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다양한 조선어문 사용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2) 정확하고 효과적인 조선

어문사용의 원리를 익혀 다양한 조선어문자료를 리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3) 중화민족의 우수한 문화와 외국 의 진보문화의 영향을 섭취하여 기본적인 인문소양을 갖추고 점차 량호한 개성과 건전한 인격을 형성한다. 4) 조선말과 글을 소중히 여기고 언어 문자능력을 발전시키고 통상 사용능력을 발전시키고 조선어문학습의 량호한 습관과 기본적인 학습방법을 갖추어 평생 학습과 발전의 량호한 조선어문토대를 마련한다.

<조선어문과정표준>(『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1학년 상권, 8면)

위의 2007년 개정 내용을 보면, 국어사용과 문법 및 문학의 조화를 강조한다. 이를 통하여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개정 전 교육 목표와 유사하다. 그러나 위의 내용에서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학습자의 주체적 국어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생활의 실체를 강조함으로써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sup>7)</sup> 이것은 개정 전 교육과정의 성격과 차별되는 지점이다.

한편 주목할 것은 2007년 <조선어문과정표준>은 한국의 제7차 국어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편찬되었다<sup>8)</sup>는 점이다. 국내 7차 교육과정기(1997년 개정)의 교육 목표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2)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 사용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6) 김화, '중국 고급 중학교 조선어문 교과서 외래어 연구', 연변대학교 석사논문, 2011. 리영실(2011), '중국 초급 중학교 조선어문 교과서의 호칭어 연구현황', 연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9면.

7) 조유리, 「중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의 비교와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10면.

8) 김화, 앞의 글, 11면.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교육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0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28면

위의 내용에서 특히 (가)는 학습 목표를 학습자 중심으로 제시하는 것이며, (나)는 인지적·정의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다. 앞서 인용문 (1)에서 제시한 2007년 <조선어문표준과정>의 교육 목표와 인용문 (2)의 7차 교육과정기의 교육 목표를 비교해 보면, (1)은 부분적으로 내용과 표현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제7차 교육과정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개정된 조선어문 교육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제7차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하겠다.’<sup>9)</sup>

## 2.2. 교재의 구성 및 극문학 제재

중국의 조선어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라 민족교육의 단일 교재인 『조선어문』도 새로운 교수요목에 의해 개편되었다. 의무교육 교수참고서에서는 1권부터 9권까지 각 권 서두에서 동일한 내용의 교육 목표 및 편집 방향, 교재 구성의 특징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교육개혁을 심화하고 자질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할데 관한 중앙 국무원의 결정”을 지침으로 하여 제정된 <조선어문과정>의 기본정신에 근거하여 편찬하였다. 교재 체계는 자율적이고 협동적이며 탐구적인 학습방법으로 창의력과 실천능력을 기르고 조선어문을 배우도록 학생들을 이끌어주며 그들의 조선어문소양을 전면적으로 높여주기 위하여 힘썼다.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면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며 그들에게 종신토록 학습하고 생활

하고 사업할 수 있는 평생학습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기 위해 힘썼다.

<편집설명>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1학년 상권, 1면)

이러한 편집 의도에 의해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은 1권부터 9권까지 매 단위마다 단위안내(‘단원명’, ‘단원주제제시’, ‘단원학습 목표’),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여기에 ‘종합성학습’을 등을 배치하였다. 단위안내의 ‘단원명’은 해당 단원에 수록된 과문들의 주제(혹은 소재)와 관련된 제목으로 설정하고 있다. ‘단원주제제시’에서는 단위(과문)의 주제(소재)와 관련한 교육 목표를 밝히고 있으며, ‘단원학습목표’에서는 해당 단원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 등 국어 교육 하위 분과의 내용과 목표를 요약하여 각각 하나씩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적용시킨 소단원 활동들이 보인다. 여기에 ‘종합성학습’을 각 대단원 학습 목표와 내용에 따라 단위 중간에 3차례 배치하고 총체적인 학습 활동을 한다.<sup>10)</sup>

『(고급중학교조선족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과정의 경우, 의무교육 교과서 편집 의도를 토대로 하나 단위 구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필수 과정에서는 ‘열독과 감상’, ‘표달과 교류’, ‘명작열독추천’, ‘부록’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전반 2개 부분은 수업 시간에 학습하는 부분이며, 후반 2개 부분은 자기주도 학습(‘자기절로 해보기’)에 속한다. ‘열독과 감상’은 교과서의 주된 학습 내용에 해당된다. 매 책에 단원의 성격에 따라 독서, 이해와 감상, 체험성·탐구성 학습 활동을 배치하여 조선어문 능력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표달과 교류’는 매 책에 3개 단위(습작 2단원, 입 말교재 1단원)를 구성하고 이와 관련된 학습문제를 제시하여, 학생들이 선택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였다. ‘명작열독추천’에서는 매 책에 2부의 명작을 배치하여 독서 습관과 감상 수준을 높이도록 하였고, ‘부록’은 향후 학생들의 사회생활을 위한 응용문제를 다루고 있다.<sup>11)</sup>

9) 조유리, 앞의 글, 10~15면.

10) <편집설명>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1학년 상권, 1~2면.

『(고급중학교조선족교과서) 조선어문』의 선택 과정에서 특히 <선택 희곡감상>편만 보면, 이 교재에서는 국내외를 망라하여 시기별로 대표작을 수록하고 있는데, '제1단원 고대희곡감상', '제2단원 근대희곡감상', '제3단원 현대희곡감상' '제4단원 당대희곡감상' 등 총 4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각 단원마다 극본 제시 후 <리해와 감상>, <사고와 탐구> 등을 통해 전자에서는 작품 소개를, 후자에서는 '생각하기와 '말해보기' 등의 간단한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비교열독, 토론식 학습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sup>12)</sup>

위의 교재 체재는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을 보장하고, 나아가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을 기하려는 교육 목표가 교과서 구성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의무교육 『조선어문』의 경우, '종합성학습'은 일종의 응용 학습으로 단원 학습 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부분이다. 고급중학교 필수 과정 『조선어문』도 '열독과 감상'에서 체험성·탐구성 학습 활동을 배치하고, '표달과 교류'에서 학생들의 선택적인 학습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명작열독추천', '부록' 등은 '자기절로 해보기'라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감상 수준을 스스로 높이고, 향후 사회생활을 위한 응용문제를 다루었다. 고급중학교 선택 과정인 <희곡감상> 편에서도 토론식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적용한 교과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위의 교과서 구성을 고려하면서, 개편된 『조선어문』 전 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극문학 제재 전반을 다룰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에서는 극문학의 성격상 민족극, 해외극 및 중국극 등으로 유형화하였다. 여기에서 민족극은 민족의 동질성을 보이는 고전 소재의 극과, 기타 조선족·한국·북한 등 한민족이 창작한 극문학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해외극은 해외 작품을 번안 각색한 극이며, 중국극은 조선족이 속한 국가,

11) <학생친구들에게>(『고급중학교조선족교과서)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면.

12) <학생친구들에게>(『고급중학교조선족교과서)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면.

즉 중국 내 작품을 의미한다. 이러한 분류 하에 『조선어문』에 수록된 극문학을 모두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sup>13)</sup>

【표 1】 『조선어문』(연변교육출판사, 2013) 극문학 제재 목록

교과서	극본	학년	작가	유형	수록 단원
의무교육조선족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버새 한 알	5학년 하권	작가 미상	민족극 (고전극)	제5단원 삶의 향기
	토끼전	6학년 상권	작가 미상	민족극 (고전극)	제6단원 독서의 즐거움
	어머니께 드리는 곡	6학년 하권	작가 미상	민족극 (방송극)	
	베니스의 상인	9학년 하권	셰익스피어	해외극 (영국)	제5단원 삶과 갈등
	마지막 한 잎		오 헨리	해외극 (미국)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인형의 집	필수 4	헨리 입센	해외극 (노르웨이)	제4단원 희극세계
	뢰우		조우	중국극	
	오이디푸스왕	선택 희곡 감상	소포클레스	해외극 (그리스)	제1단원 고대희곡감상
	두아원		관한경	중국극	
	봉산탈춤		작가 미상	민족극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	해외극 (영국)	제2단원 근대희곡감상
	수전노		몰리에르	해외극 (프랑스)	
	토막		유치진	민족극 (한국)	
	느릅나무 밑의 욕망		유진 오닐	해외극 (미국)	제3단원 현대희곡감상
	차집		로사	중국극	
	빙어리 웨이터		헤럴드 핀터	해외극 (영국)	
	세일즈맨의 죽음		아서 밀러	해외극 (미국)	
	명성황후		이문열	민족극 (뮤지컬)	제4단원 당대희곡감상
	꽃 피는 처녀		작가 미상	민족극 (가극)	

13) 이하 『의무교육조선족교과서) 조선어문』은 의무교육 『조선어문』으로, 『고급중학교 조선족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과정은 『조선어문』(필수4)로 선택 과정은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으로 표기하겠다.

【표 1】을 보면 전 학년 교과서에서 극문학은 총 19편이며, 5학년 하권부터 극문학 제재가 드러나고 있다. 의무교육 5학년은 소학교 상급반에 속하는데, 이를 보면 극문학은 소학교 고학년 대상부터 교육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수록 빈도에서 첫째, 민족극에 해당되는 극문학 수록상을 보면, 의무교육 『조선어문』에 3편이 실려 있는데 고전극 <벼씨 한 알>(5학년 하권), <토끼전>(6학년 상권), 방송극 <어머니께 드리는 곡>(6학년 하권) 등이다.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는 4편이 수록되어 있으며 고전극 <봉산탈춤>, 유치진의 <토막>, 이문열(윤호진 연출)의 <명성황후>, 북한 가극 <꽃 피는 처녀> 등이다.

둘째, 해외극은 의무교육 『조선어문』에 2편이 보이는데,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9학년 하권), 오 헨리의 <마지막 한 잎>(9학년 하권) 등이다. 고급중학교 『조선어문』(필수4)에는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 1편만이 수록되어 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해외극은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 실려 있는데 총 9편으로,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왕>,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몰리에르의 <수전노>,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 해럴드 핀터의 <병어리 웨이터>,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등이다.

셋째, 중국극은 『조선어문』(필수4)에 조우의 <뢰우> 1편과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 관한경의 <두아원>, 로사의 <차집> 등 2편이 실려 있다.

위의 수록 상황을 보면, 전체 극문학 편수 19편 중 12편이 고급중학교 선택 과정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선택 과목의 경우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문법』, 『습작』, 『시가와 수필 감상』, 『소설감상』, 『신문과 전기』, 『희곡감상』 등 6개 과목 중 1개만을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배우는 극문학 단원은 7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유형 중 해외극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영미 희곡이 다수로서 여타 아시아 지역 작품이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중국극의 경우는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인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장르면을 보면 방송극(<어머니께 드리는 곡>, 시나리오(<마지막 한 잎>, 뮤지컬(<명성황후>), 가극(<꽃 피는 처녀>) 등은 각각 1편씩만 수록되어 있다. 그 외 모두 희곡 작품이라는 점에서 희곡 제재 편중 현상을 보인다.

아래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조선어문』 교재의 특징 및 구성을 고려하면서, 본고에서 설정한 유형별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분석할 것이다. 그런데 유형별에서 전체 극본 수 중 중국극은 3편에 불과해, 1. 민족극, 2. 해외극 및 기타 중국극 등으로 대별하여 논의의 균형을 기하고자 한다. 한편 민족극은 민족의 동질성을 토대로 하면서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국내 국어 교과서 재수록본의 경우, 국내 수록상과 비교 분석을 가하고자 한다. 2007년 조선어문 교육과정이 7차 교육과정기를 답습하고 있다는 점은 위에서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국내 제재의 재수록본은 어떠한 양상을 띠고 있는지 그 실체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극문학 교육과의 상관성을 구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 작품군은 민족의 동질성을 토대로 하면서 영향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타 한민족 상호 관련성도 주시하며 분석을 가할 것이다.

### 3. 극문학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

#### 3.1. 민족극 : 한민족 극본 제재와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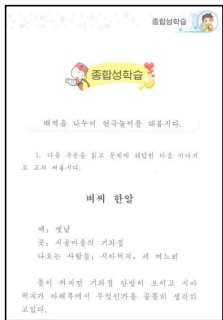
【표 1】에 제시된 민족극의 유형을 보면 그 장르상 희곡, 방송극과 음악극(뮤지컬, 가극) 등으로 대별됨을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분석의 체계성을 위해 장르상 분류하여 각급별로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살펴

로 하겠다. 학습 활동의 경우, 의무교육과 고급중학교 필수 과정은 단원 말미에 실린 <학습 활동>과 교수참고서를 참고하여 분석을 가했다. 고급중학교 선택 과정은 선택 지도하는 교재라 교수참고서가 없으며, 극본 말미의 <사고와 탐구>란에 간단한 학습 문제만 제시되어 있어 이를 참고하여 학습 활동을 고찰하였다.

3.1.1. 희곡 제재의 수록 현황

민족극에서 희곡 장르는 <벼씨 한알>, <토끼전>, <봉산탈춤>, <토막> 등이다. <토막> 외에 앞선 세 단원은 모두 국내 국어 교과서에서도 다루어진 작품이다. 앞서 살핀 바, 새롭게 개편된 『조선어문』은 국내 7차 교육과정기를 참고하여 교육 체재를 재편하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교재이다. 그러므로 이 세 단원은 국내 교과서와 상관성을 지닌다고 하겠다. 이 작품들에 대해서는 비교 분석을 통하여 그 영향 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가. 의무교육 『조선어문』 희곡 : <벼씨 한알>, <토끼전>



【그림 1】 <벼씨 한 알> (의무교육 『조선어문』 5학년 하권, 139면)

14) <벼씨 한 알>(의무교육 『조선어문』 5학년 하권, 105면)

<벼씨 한알>과 <토끼전> 등은 각각 구비설화와 고전소설을 제재로 한 고전극이다. 먼저 <벼씨 한알>은 『조선어문』 5학년 하권의 '제5단원 삶의 향기에서 <통합성학습>으로 제시된 희곡이다. 5단원의 대단원 목표는 "이야기를 읽고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였는가를 알아봅시다"<sup>14)</sup>로서, 표면적으로는 인물의 묘사 부분을 주시하며 읽는 것이 학습 목표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훌륭한 사람들의 고상한 품성을 제시하여 귀감이 되

게"<sup>15)</sup>라는 교육적 가치를 학습하는 대단원이기도 하다. 이에 5단원은 흥군 노전사의 죽음을 다룬 소위 "혁명회역록" <9. 불후의 기념비>와 우주비행사 블라지미르 코마로브의 희생을 소재화한 <10. 비장한 력사의 한 순간> 등을 소단원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

<벼씨 한알>은 위에서 언급한 대단원 목표 및 교육적 가치와 연계되어 단원 말미의 <통합성학습>에 속하는 단원이다. 이 작품은 '배역을 나누어 연극놀이하기'<sup>16)</sup>라는 지시 하에 짧은 단막극 형태로 수록되어 있다. 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나이 들어 며느리 중 한 명에게 살림을 물려주려고 결심한 시아버지는, 세 명의 며느리에게 '벼씨 한 톨' 씩을 주면서 그들을 시험한다. 첫째 며느리와 둘째 며느리는 이를 하찮게 여겨 버리지만 마지막 셋째 며느리는 시아버지가 뜻이 있어서 한 행동이라 여기며 이를 쓰임새 있게 사용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이 극본은 '지혜로운 셋째 며느리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국내 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인 『말하기 듣기 쓰기 6-1』에 수록된 <벼씨 한 톨>과 동일하며 이를 그대로 실은 경우이다. 이 작품의 학습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2】 <벼씨 한알> 학습 활동

① 이야기의 배경은 어떠합니까? (때/곳) / ② 나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 ③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 ④ 인물들의 성격은 어떠합니까? ⑤ 문제를 해결한데 기초하여 극본을 이야기로 고쳐 말하고 글로 써봅시다.(중략) 소조별로 연극놀이를 해봅시다. ⑥ 어느 소조에서 가장 잘하였는지 호상 평가해 봅시다.  
<학습 활동>(의무교육 『조선어문』 5학년 하권, 139면)

실제로 5단원은 묘사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단원 목표라 할 수 있는데, 앞서 제시한 소단원 9와 10의 이야기글에서는 주로 인물의 말이나 행동,

15) <벼씨 한 알>(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5학년 하권, 139면)  
16) <벼씨 한 알>(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5학년 하권, 139면)

심리, 외모 등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보인다.<sup>17)</sup> 이어서 제시된 종합성학습에서는 희곡 <벼씨 한알>을 다루면서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인물 파악하기, 사건 이해하기, 인물의 성격 이해하기 등과, 이 희곡을 이야기글로 써 보기(문중 바꾸기), 연극하기, 평가하기 등의 학습 활동을 보이고 있다.<sup>18)</sup>

희곡은 장르의 성격상 묘사보다 행동의 문학이라 할 수 있는데, <벼씨 한톨>의 학습 활동은 대단원의 목표와는 다소 어긋난 측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종합성학습은 주로 조선어문의 소양을 길러주며, 기타 학과목들과 연계시켜 종합적인 자질을 길러주려는 데 설정 취지가 있다.<sup>19)</sup> 또한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유도하는 학습의 장이기도 하다.

(4) 종합성학습 활동에서는 우선 학생들의 참여의식을 높여주어 누구나 다 주동적이고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원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주요한 학습 활동은 소조활동의 방식으로 전개하도록 제시되었는바 협동정신을 길러주는데 모를 박아야 한다. 교원은 제때에 독촉하고 검사해야 한다. 그리고 활동의 마무리단계에서는 부동한 방식으로 활동성과를 펼쳐보이도록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어문학습은 아주 쓸모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성공의 희열을 맛볼 수 있게 해야 한다.

<편집설명>(의무교육 『조선어문』 1학년 상권, 20면)

보다시피 위와 같은 취지 하에 <벼씨 한알>의 학습 활동이 설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학습 활동은 국내 7차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인 『말하기 듣기 쓰기 6-1』의 학습 활동과 유사하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내에서는 극본 <벼씨 한 톨>과 소설 <벼씨 한 톨의 의미> 등 문종이 다른 두 개의 글을 통해 먼저, 인물의 성격, 사건, 배경 등을 살펴보게 하

17) <벼씨 한 알>(의무교육 『조선어문』 5학년 하권, 108~109면, 115면)

18) <벼씨 한 톨>(7차 『말하기 듣기 쓰기 6-1』, 2002, 142면)

19) <편집설명>(의무교육 『조선어문』 1학년 상권, 20면)

고, 이를 통해 ‘극본’과 ‘이야기’의 차이점을 파악하며, ‘극본을 이야기로, 이야기를 극본으로 바꾸어 쓰는’<sup>20)</sup> 학습 활동을 보인다. 여기에서 <벼씨 한알>은 국내 교과서 희곡을 동일하게 수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 문제까지 유사하게 차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표 2】의 문항을 보면 국내와 달리 연극하기라는 극화수업이 보인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참고로 교수참고서에서도 다음과 같은 교수 목표 및 교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5학년 하권, 167면.

교수 목표	교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역을 나누어 연극놀이를 하도록 한다.</li> <li>연극놀이를 통하여 표현능력을 키우고 성원들 사이의 협동정신을 기르도록 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극본을 이야기로, 이야기를 극본으로 고치기</li> <li>배역을 나누어 공연할 준비를 하기</li> <li>연극놀이를 하고 평가하기</li> </ul>

위의 내용은 교과서 학습 활동과 연계된 것으로서, 특히 극화수업의 부분에 해당된다. 국내 7차 국어 교과서의 경우, 분과 체제가 도입되면서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등 국어교육 하위 체제로 분리되고 극화수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현상을 보인다.<sup>21)</sup> 이와 달리 『조선어문』에서는 “연극놀이를 통하여 표현능력을 키우고 성원들 사이의 협동정신을 기르도록 한다.”라는 교수 목표와 같이 학생들의 참여를 위한 연극하기 학습을 배치했다.

다음 <토끼전>은 6학년 상권 ‘제6단원 독서의 즐거움’에 수록된 작품이다. 6단원은 옛이야기나 외국 작품을 읽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알기(읽기), 자기가 읽은 옛이야기나 외국작품에 대하여 말해보기(말하기 듣기),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 드러나게 재미있게 바꾸어 쓰기(쓰기)<sup>22)</sup> 등 국

20) <벼씨 한 톨>(7차 『말하기 듣기 쓰기 6-1』, 2002, 70~77면)

21) 韓恩淑, 『한국어린이연극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4, 98면.

22) <벼씨 한알>(의무교육 『조선어문』 5학년 하권, 137~138면)

어교육 하위 분과를 고루 학습하는 단원 목표를 보이고 있다. 이에 <선녀와 나무꾼>, <신데렐라>에 이어 <토끼전>이 학습 자료로 제시되고 있다.

<토끼전>은 우리 고전의 해학성이 잘 드러난 작품으로, 상황마다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장인물들의 순간적인 재치가 돋보인다.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왕의 발병으로 인한 사건의 발단, 자라가 토끼를 유인하여 용궁으로 데려가는 일련의 전개 과정, 토끼의 능란한 재치로 인한 사건의 반전, 결국은 토끼가 다시 육지로 돌아가는 결말 등의 플롯을 보인다. 이 작품 또한 국내 6차 『읽기 5-2』, 7차 『말하기 듣기 쓰기 5-1』 등에 <별주부전>으로 수록된 극본을 제목만 달리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이 작품은 “옛 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생각하며 다음 글을 더 읽어 봅시다”<sup>23)</sup>라는 지시 하에 읽기 자료로 제시되고 있으며, 교과서에는 따로이 학습 활동이 없다. 그러나 교수참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습 활동을 제시하고 있어 참고할 만하다.

(5)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건의> 옛이야기를 읽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가를 알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학습을 조직하도록 하면 좋겠다. ○ 과문을 읽으면서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의 언어와 행동을 잘 따져 그들의 성격을 알아보는 데로부터 착수하여 옛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머리에 떠올리도록 할 수 있다. ○ 과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대비하도록 할 수 있다. ○ 옛사람들의 삶의 모습에서 어떤 경험과 교훈을 섭취해야 하겠는가를 생각하도록 할 수 있다. ○ 역할놀이학습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

<교수, 학습 활동에 대한 건의>(『조선어문 교수참고서』 6학년 상권, 196면)

23) <별주부전>(의무교육 『조선어문』 5학년 하권, 154면)

위의 내용을 보면, <토끼전>은 대단원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고전 읽기를 통해 ‘지혜를 터득한다(독서의 효용성)’는 데 중점을 둔 단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제제가 극본이라는 점에서 “역할놀이 학습방법으로 취급할 수 있다.”라는 극문학 고유의 학습 활동을 보여 주목된다.<sup>24)</sup> 이와 비교하여 국내 교과서 <별주부전>에서는 사건의 원인과 결과 파악하기, 사건의 전개 과정 파악하기, 배역을 정하여 낭독하기 등의 학습 활동을 보인다.<sup>25)</sup> 결과적으로 『조선어문』의 <토끼전>은 국내 교과서의 동일 희곡이 수록되었으나, 대단원의 목표와 관련돼 학습 활동은 다소의 차이점을 드러낸다.

나. 고급중학교 『조선어문』 희곡 : <봉산탈춤>, <토막>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에 실린 희곡은 ‘선택 희곡감상’에만 2편이 수록되어 있는데, 고전극인 <봉산탈춤>과 근대극인 유치진의 <토막> 등이다. 선택 과목의 경우는 지역적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과목이며 주로 작품 감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무교육 및 필수 과정의 단원과는 차별성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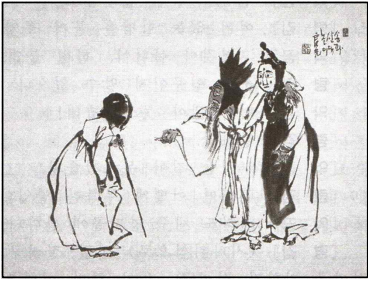
(6) 본 선택 과정을 학습함에 있어서 중점을 “감상”에 두어야 합니다. 이것은 필수 과정에 선택된 희곡작품 학습과의 구별점이기도 합니다. 매편의 작품 뒤에 제기된 “사고와 탐구” 문제는 근근히 작품감상의 어느 한 측면일 따름입니다. 비교열독, 토론식 학습방법은 작품감상에서 선호되고 있는 학습방법임을 조언하고 싶습니다.

<학생친구들에게>(『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면)

24) <참고자료>(『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96~197면)

25) 6차 <별주부전>(『읽기 5-2』, 1997, 94면), 7차 <별주부전>(『말하기 듣기 쓰기 5-1』, 2002, 142~153면)

위의 내용을 보면 이 교재는 필수 과목과 달리 감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작품 수록과 함께 <리해와 감상>, <사고와 탐구> 등을 통해 전 자에서는 작품 소개를, 후자에서는 ‘생각하기’와 ‘말해보기’ 등의 간단한 학습 활동만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2】 <봉산탈춤> 삽화(『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55면)

먼저 <봉산탈춤> 은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의 ‘제1단원 고대희곡감상편에 고대 그리스 비극 <오이디푸스 왕>, 중국 고대극 <두아원>와 함께 제시되고 있다. 봉산탈춤은 황해도 지방에서 전승되던 탈춤의 하나로서, 여타 가면극과 마찬가지로 춤을 중심으로 몸짓, 동작, 재담과 노래가 따르는 형

식이다. 제1과장 사상좌춤, 제2과장 팔목중춤, 제3과장 사당춤, 제4과장 노장춤, 제5과장 사자춤, 제6과장 양반춤, 제7과장 미얄춤 등 모두 7과장으로 움니버스식 구성을 취하고 있다. 파계승, 몰락한 양반, 하인, 무당, 사당패 등을 등장시켜 익살과 웃음을 통하여 현실의 모순을 폭로하고 있는 고전극으로, 국내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sup>26)</sup>에서도 다루어졌던 작품이다.

그런데 국내의 경우는 전 작품을 신지 않고 ‘6과장 양반춤’만을 수록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서는 7과장 전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국내의 경우 다양한 장르의 단원과 함께 수록되기 때문에 길이에 제한을 둔 반면, 『조선어문』의 경우 희곡만을 실은 ‘선택 희곡감상’편에서 다루는 것이라 전작을 수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습 활동의 경우, 국내와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26) 5차 『고등국어 하』, 6차 『고등국어 상』, 7차 『고등국어 상』 등에 수록.

【표 4】 <봉산탈춤> 학습 활동 비교(『고등국어』/『조선어문』)

국내(『국어』)	조선족(『조선어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탈춤을 이해하기 / 대사의 특징 및 말의 효과 파악하기 /</li> <li>극적 갈등과 당대 사회와의 관련성(풍자) 파악하기 /</li> <li>탈춤과 사실주의극과의 차이점 비교하기 /</li> <li>낭독하기</li> </ul> <p>5~7차까지의 학습 문제 요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문을 실례로 봉산탈춤에는 당시의 어떤 사상의식이 반영되어 있는가를 말해 보라</li> </ul> <p>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59면.</p>

【표 4】에서 국내 『고등국어』 교과서 학습 문제는 5~7차까지의 문제<sup>27)</sup> 중 공통적으로 드러난 문항만을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다. 국내의 경우는 극문학 장르의 이해, 대사·성격·갈등의 파악, 탈춤과 사실주의극 비교 등 다양한 학습 활동을 보인다. 이에 반하여 『조선어문』의 학습 문제는 주제 파악(내용 감상)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앞서 살핀 선택 과정 교과서의 편집 의도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간략한 문제 제시는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자율적인 운영을 허용하는 측면이기도 하다. 다음의 글은 이를 반영하는데,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가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을 어떻게 교수하였는가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정향란(2012)에서는 ‘조선어문 교육과 연구’라는 주제 하에 교수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선택 과정 희곡에서 학생들의 감상 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활용했다고 제시하고 있다. 즉 “1. 작품에서 표현되는 극적 갈등을 리해시켰다. 2.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였다. 3. 등장인물들의 개성적인 언어에 대해 알게 하였다. 4. 희곡을 창작하려는 욕심을 갖게 하였다.”<sup>28)</sup> 등이다. 각각의 항목에서 실제 교육 사례를 들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바는 <봉산탈

27) 국내 학습 문제는 5차 『고등국어 상』, 1992, 105면, 6차 『고등국어 상』, 1997, 177면, 7차 『고등국어 상』, 2002, 131~137면 등을 참조.

28) 정향란은 길림성 연길시 제2고급중학교 교사로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의 지도 내용을 밝힌 것이다(정향란, 『희곡감상에서의 몇 가지 감상방법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181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2, 79~81면).

춤>을 세 번째 항목의 예시로 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은 언어 표현의 묘미를 살린 재담이 돋보이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지도 방향이 정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조금란(2009)에서도 ‘교육 교수 탐구’라는 주제로 실제 <봉산탈춤>의 수업 내용을 밝혔는데, 이 단원을 인쇄매체와 영상매체를 활용한 ‘비교 열독’을 중심으로 교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기본 과정으로 ‘원문 이해 활동 - 영상매체 이해 활동 - 원문과 영상 매체 비교 활동’을, 그리고 이의 심화 과정으로 ‘작품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이해’ 등의 교수 방법을 활용했다.<sup>29)</sup>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이 비교 열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7) 21세기에 와서 매체 환경이 변하면서 소통방식이 달라짐에 따라 전통적인 소통방식을 고수하는 문학 작품들을 강력한 시각 문화환경 속에서 열세를 드러내고 있다. 문학 작품은 이제 문화의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중략) 이런 상황에 비추어 많은 경전 작품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시각화하고 있다. 이런 경전 작품들 가운데는 교재에 수록된 것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어 있는바 이런 영상 매체 교재들을 수업 현장에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의 열독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작품에 대한 이해를 보다 풍부히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조금란(2009), 52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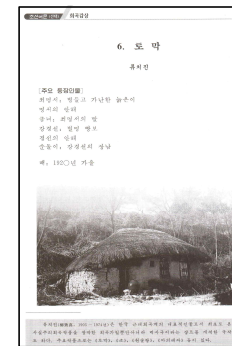
국내 7차 『고등국어 상』에서도 ‘3. 다양한 표현과 이해’라는 대단원 하에 <봉산탈춤>이 수록되고 있으며, “봉산(鳳山) 탈춤을 읽으면서 장면에 따라 말의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 알아본다”라는 단원 목표 하에 언어 표현을 탐구하는 학습 활동을 보인다.<sup>30)</sup> 또한 <봉산탈춤>의 실제 공연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제시하며 매체를 비교하여 학습

29) 조금란, 「영상매체를 활용한 희곡열독감상」, 『중국조선어문』 제163호, 길림성민족사 무위원회, 2009, 51~54면.

30) <봉산탈춤>(7차 『고등국어 상』, 2002, 100~101면)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앞에서 제시한 『조선어문』의 실제 교수 내용 또한 유사한 학습 활동을 보이는데, 국내 국어 교과서나 『조선어문』 모두 <봉산탈춤>의 학습 활동은 언어 표현에 대한 이해와 매체 활용을 통한 비교 등이 주요 학습임을 알 수 있다. 『조선어문』이 7차 교육과정기를 답습하여 개편한 것을 고려하면, 이 극본 학습 활동도 국내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유치진의 <토막> 역시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 수록된 희곡으로, ‘제2단원 근대희곡감상’편에서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몰리에르의 <수전노>와 함께 수록되어 있다. 한편 『조선어문』에 소위 동량의 ‘농촌 3부작’ 중 하나인 <토막>이 실리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림 3】 <토막>(『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08면)

(8) <토막>은 조선 반도 근대 희곡사에서 구체적인 사회현실을 다룬 본격적인 희곡으로는 첫 작품이자 사실주의 희곡의 이정표로 되는 작품이다.(중략) 일제는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식산은행 등을 통하여 일본의 농업 자본을 침투시켰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들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였다. 그 결과 조선 사람들은 지주의 위치에서 소지주로 또는 소작농으로 전락해 겨우 목숨만을 부지해가는 궁핍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리해와 감상>(『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27면)

위의 작품 설명에서는 지주(일제)로 대표되는 자본가와 소작농으로 전락한 조선인들 간의 갈등상에 주목하고 있다. 유치진의 희곡은 국내 중등학교 교과서에서도 여러 편 다루어졌는데, <원술량>, <사육신>, <별>,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 <조국> 등 주로 역사소재극이 주를 이루며, 충, 효, 반공 등의 교육적 가치<sup>31)</sup>와 관련된 희곡들이라는 점에서 『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의 수록상과 비교된다.

이 단원에 대한 <리해와 감상>에서는 작품 소개와 더불어 작품의 암시적 기능(복선), '죽음과 삶, 어둠과 불'의 대조 기법 등 극적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했다. 이어서 <사고와 탐구>에서 "이 작품에서 어떤 인소들이 극적 효과에 적극적인 작용을 놓고 있는가를 말해보자"<sup>32)</sup>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극 소개 내용을 토대로 작품의 극적 장치를 탐구하는 학습이라 하겠다.

3.1.2 방송극과 음악극 : <어머니께 드리는 곡>, <명성황후>, <꽃 파는 처녀>

의무교육 『조선어문』(6학년 하)에는 조선족의 방송극 <어머니께 드리는 곡>이,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는 한국의 뮤지컬극본 <명성황후>와 북한의 가극 <꽃 파는 처녀>가 실려 있다.

<어머니께 드리는 곡>은 '제6단원 감상의 즐거움'에 실린 방송극이다. 6단원에는 이 극본 외에 <12. 짐승들이 세운 기념비>라는 동화가 소단원으로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 대단원 목표는 "다양한 글들을 찾아 감상하기(읽기), 인상 깊은 일을 생각이나 느낌을 곁들여 재미있게 말하기(말하기 듣기), 소학교를 졸업하면서 인상 깊은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글을 쓰기(쓰기)"<sup>33)</sup> 등으로 국어교육 하위 분과 학습이 고루 적용되고 있다.

6단원의 소단원에 속하는 <어머니께 드리는 곡>은 슈베르트(슈베르트

31) <원술량>(교수요목기 『중등국어 3-2』, 『중학교어 3-2』, 3차 『중학교어 2-1』, 4차 『중학교어 2-1』, 5차 『중학교어 2-1』, 6차 『중학교어 1-1』), <사육신>(2차 『중학교어 2-2』, 3차 『중학교어 2-2』), <조국>(2차 『고등국어 1』, 3차 『고등국어 1』, 4차 『고등국어 1』, 5차 『고등국어 1』), <청춘은 조국과 더불어>(4차 『중학교어 3-2』, 3차 『고등국어 1』, 4차 『고등국어 1』)  
32) <사고와 탐구>(『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128면)  
33) <어머니께 드리는 곡>(의무교육 『조선어문』 6학년 하, 127면)

프란츠 페터)의 어린 시절을 다룬 극본이다. 주인공 프란츠는 음악 공부에 열중하다 보니 학업이 부진해지고 이에 아버지는 음악 공부를 그만두고 명령한다. 이에 그는 갈등하며 방황하나, 이러한 과정 중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소질을 깨닫고 지극한 관심과 사랑으로 격려한다. 결국 어머니의 힘으로 프란츠는 유명한 음악가가 되는데, 후일 작곡한 '슈베르트'의 자장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작품이라는 내용이다. 이 극본은 총 9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점마다 해설자의 개입으로 장면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sup>34)</sup>

<어머니께 드리는 곡>의 학습 문제는 다음과 제시되고 있다.

【표 5】 <어머니께 드리는 곡> 학습 활동

1. 프란츠는 어찌하여 드립없이 음악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 2. 프란츠, 프란츠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각각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가를 알아봅시다. / 3. 인물의 특점을 파악한 기초에서 연극을 하듯이 배역을 나누어 인물의 마음에 어울리게 과문을 표현적으로 읽어봅시다.  
<학습 활동>(『조선어문 교수참고서』 6학년 하권, 13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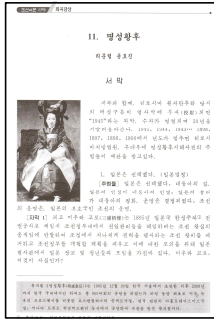
위의 학습 활동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기(①), 인물의 성격 파악하기(②), 배역에 맞게 낭독하기(③)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교수참고서에서는 【표 5】의 학습 활동에 대한 문항 설정 의도 및 지도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 <학습 활동문제에 대하여> 1. 과문 내용 이해를 위한 읽기 훈련 문체면서도 프란츠의 성격과도 관계되기에 목표 관련 문제라고도 할 수 있다. 2. 목표도달을 위한 읽기 훈련 문제이다. 3. 배역을 나누어 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과문을 읽는 것을 통하여 주요인물(프란츠)의 마음을 보다 깊이있게 리해시키기 위한 연습이다. 주로 프란츠의 마음 변화를 잘 파악시킨 기초에서 배역독을 지도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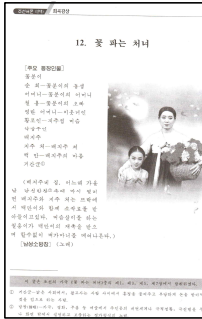
<학습 활동 문제에 대하여>(의무교육 『조선어문』 6학년 하권, 150면)

34) <어머니께 드리는 곡>(의무교육 『조선어문』 6학년 하, 128~129면)

위의 내용은 교과서 학습 문제와 관련된 교수 내용이기도 한데, 문제 1과 2는 인물의 성격 파악을 위한 읽기, 문제 3은 인물의 심리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취지에서 설정된 문제임을 알 수 있다.



【그림 4】 <명성황후>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28면)



【그림 5】 <꽃 피는 처녀>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58면)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 제시된 <명성황후>와 <꽃 피는 처녀>는 '제4단원 당대회곡감상편에서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과 함께 수록된 작품이다. 이문열의 <명성황후>는 1995년에 초연을 올린 국내 창작 뮤지컬로서, '여우사냥이라는 작전명으로 일어났던 명성황후 시해사건을 다루고 있다.

소설가 이문열의 희곡 <여우사냥>(1994)을 원작으로, 김광림이 각색하고 김희갑·양인자 부부가 작곡·작사, 유효진이 기획·제작한 작품으로 화제를 모았던 뮤지컬이기도 하다.<sup>35)</sup>

그런데 '선택 희곡감상편에서 한국의 당대 희곡으로 정작 희곡이 아닌 뮤지컬을 선정한 이유가 주목된다.

(10) 한국의 희곡문학은 당대에 이르러 소극장의 폭증, 극작가 대오의 확충, 희곡 작품 게재지면의 확대 등 양상을 보이면서 해방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한국의 당대 희곡에서 가장 주목되는 특징은 전통적인 민속극의 구성 원리를 서양식 현대극과 결합시켜보고자 하는 움직임—'민족극운동'이 널리 전개된 점이다.(중략)한국의 당대 희곡에서 굴지해

35) 한국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미국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진출한 <명성황후>는 외국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며, 창작뮤지컬 세계화의 초석을 닦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에이콤 내셔널 www.iacom.co.kr).

야 할 것은 뮤지컬의 급부상이다. 1960년대 중반에 한국에 도입된 뮤지컬은 "에그린악단"의 <살짜기 읍서예>로 화려하게 한국 뮤지컬의 시작을 알리면서 급속히 발전하여 오늘날 <명성황후>, <동송동연가>, <사랑은 비를 내리고> 등 명작과 더불어 한국 희곡 분야를 주재하고 있다.

<제4장 당대회곡감상>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06면)

위 교재는 2007년도 개정판으로 당대 한국 희곡계를 소개하는 내용의 일부이다. 인용문에서는 한국 희곡문학이라 칭하며 '민족극 운동과 뮤지컬의 부상'이 가장 손꼽히는 특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순수 희곡은 아니지만 당대 한국 연극계를 대표할만한 뮤지컬을 수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교재에서는 <명성황후>의 전작을 게재하고 있는데, '서막·1막(총7장)·2막(총13장)·맺음막' 등 상당량의 지면을 할애하여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사고와 탐구>에서는 "과문을 실례로 뮤지컬의 특징을 개괄해보라"라는 내용으로 장르적 특징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을 보이고 있다.

한편 <꽃 피는 처녀>는 1972년 피바다 가극단에서 초연한 작품으로 김일성이 직접 창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0~30년대 일제강점기가 배경이며, 꽃분이 일가를 비롯한 소작농들과 지주, 일제와의 대립을 그리면서 혁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작품이다. <피바다>,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밀림과 이야기하라> 등과 함께 북한의 5대 혁명가극에 속하며, 거대한 무대장치, 무대배경의 입체조명과 환등처리, 대규모 합창단의 방창과 군무 등을 도입, 음악·무용·미술의 조화 등으로 종합예술로서 완성도가 높은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그런데 앞서 살핀 한국의 <명성황후>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당대 대표 극문학으로 가극을 수록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희곡문학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36) 이형관, 「革命을 주제로 한 北韓 映畫 연구 : 피바다, 꽃 피는 처녀, 소금을 中心으로」,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8, 39~40면.

(11) 당대 희곡문학은 시문학이나 소설문학에 비해 볼 때 많이 손색이 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피바다>, <한 지위단원의 운명>, <꽃 파는 처녀>와 같은 “3대 혁명 대작으로 세계 가극력사의 새 기원을 열어 놓은 조선식의 가극예술을 선보임으로써 한 대 고봉기를 이룩하기도 했으나 문학의 사회적 기능, 교양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면서 대중교양에 있어서 보다 광범위하며 효과적인 영화예술에 점차 자리를 내 주었다.

<제4장 당대희곡감상>(『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06면)

위의 인용문에서는 북한 희곡문학의 고봉기(高峰期)를 점하고 있는 장르를 가극(가)으로 보고 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북한 당대 대표 희곡으로 <혁명의 새 아침>, <위대한 전환>, <연풍호> 등을 들고 있으나, 다름 아닌 <꽃 파는 처녀>가 교과서에 수록된 것은 북한의 대표 극문학으로 가극을 꼽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꽃 파는 처녀>는 특히 방창의 기능이 돋보이는데, 방창은 대사 외에 줄거리와 따른 등장인물들의 관계나 극적 상황 등을 무대 밖에서 부르는 노래로서, 일종의 서술적 기능을 지니고 있다. 즉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기도 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등장인물들의 사상과 행동에 대한 태도를 노래하기도 하며, 해설자의 위치에서 극 진행을 설명하기도 한다.<sup>37)</sup> 이러한 작품의 특성에 맞게 <사고와 탐구>에서는 “이 작품을 실례로 조선의 <피바다>식 가극에서 방창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말해 보라”<sup>38)</sup>라는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문제는 일종의 노래가 지닌 극적 기능에 대해 탐구하는 학습이라 볼 수 있다.

37) <사고와 탐구>(『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80면)  
38) <리해와 감상>(『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79면)  
39) <꽃 파는 처녀>(『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279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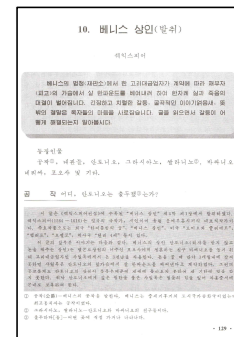
### 3.2. 해외극 및 중국극 : 서구극 편향화와 이념성

앞서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해외극은 의무교육에 2편(<베니스의 상인>, <마지막 한 잎>), 고급중학교의 필수 과정에 1편(<인형의 집>), 선택 과정에 6편(<오이디푸스왕>, <로미오와 줄리엣>, <수전노>, <느릅나무 밑의 욕망>, <병어리 웨이터>, <세일즈맨의 죽음>) 등 총 9편이 실려 있다. 해외극은 극문학 제재 중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유형으로서 이것은 ‘선택 희곡 감상의 수록 편수로 인한 것이기도 하다. 기타 중국극은 고급중학교 필수 과정과 선택 과정에서 3편(<퇴우>, <두아원>, <차집>)이 다루어지고 있다. 아래에서는 각급별로 그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 3.2.1. 의무교육 『조선어문』 수록 극문학: <베니스의 상인>, <마지막 한 잎>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의무교육 『조선어문』 9학년 하권 ‘제5단원 삶과 갈등’에서 소설 <집념><sup>40)</sup>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오 헨리의 <마지막 한 잎>은 5단원의 심화학습인 ‘자기절로 해보기’에 시나리오 형태로 실려 있다.<sup>41)</sup>

<베니스의 상인>은 총 5막으로 구성된 희극인데, 『조선어문』에서는 절정 부분인 ‘법정 장면’(4막 1장)만을 실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그림 6】 <베니스의 상인>(『조선어문』9학년 하권, 129면)

40) 이 소설은 국내 이은성의 『동의보감』을 발췌하여 수록한 것이다.  
41) 이 두 작품 또한 국내 국어 교과서에서도 수록 빈도가 높은 작품으로 『조선어문』 수록 이전인 교수요목기부터 초등 과정, 중등 과정, 고등 과정 등 각급 교과서에서 다루어진 극본이다. 동일 극본과 유사한 학습 활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또한 국내 극본 제재와의 영향 관계를 보인다 하겠다.

희곡으로 등장인물은 사일록, 안토니오, 바사니오, 그라시아노, 포셔 등이다. 안토니오가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인 사일록에게 채무를 지게 되나, 기한 내에 빚을 갚지 못해 계약한대로 그의 가슴살 1파운드를 베어 내는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포오샤가 피 한 방울 흘리지 말고 실행하라는 판결을 내려 안토니오가 목숨을 구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교수참고서에서는 <베니스의 상인>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12) 극중의 사일록과 안토니오간의 모순갈등은 풍부한 사회내용을 담고 있다. 이 모순갈등은 인성의 선과 악의 충돌을 표현하며 작자의 인애, 우의, 애정, 채무 등에 대한 인문주의 리상을 기탁하고 있으며 또한 신용 자산계급과 고리대금업자의 경제적 이익상의 충돌과 그 가운데에 섞인 민족, 종교의 모순도 반영하고 있다.

<교수건의>(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12면)

교수참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작품 설명과 함께, 사일록을 “자산계급자”로, 안토니오를 “신형 상업 자본가”로, 포오샤를 “이상적 인물”로 내세우면서 작품의 가치를 계급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한 <베니스의 상인>을 셰익스피어 희곡 가운데 사회 풍자성이 강한 작품 중의 하나로 꼽고 있다.<sup>42)</sup>

앞서 제시한 바, <베니스의 상인>은 ‘제5단원 삶과 갈등’이라는 대단원에 수록된 것으로 교수참고서에서는 교수 목표 및 계획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표 6】 <베니스의 상인> 교수 학습 목표 및 계획(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 교수, 학습 목표	2. 교수, 학습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긴장하고 치열한 모순갈등과 굴곡적인 위음세를 파악한다. /</li> <li>개성이 선명한 인물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작자와 작품, 시대 배경을 소개하기 /</li> <li>생동하고도 형상적인 언어를 학습하기 /</li> </ul>

42) <베니스의 상인>(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09면)

상을 인식한다. /	개성적이며 생동하고도 형상적인 언어를 학습한다. /	개성이 선명한 인물형상을 리해하고 배역독하기 /	모순갈등의 해결과정과 위음새발전을 리해하기 /
희곡의 내용 성특징을 살려 배역독한다. /	희곡의 내용을 이야기로 바꾸어 말한다.(104면)	희곡의 내용을 이야기로 바꾸어 말하기(105면)	

위의 교수 내용을 정리하면, 1. 갈등 파악, 2. 개성적인 인물 형상의 인식, 3. 희곡 언어의 이해, 4. 낭독하기(배역독), 5. 문중 바꾸기(희곡을 이야기로) 등이다. 아래 교과서의 학습 활동은 바로 이러한 교육 목표를 성취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표 7】 <베니스의 상인> 학습 활동

1. 문학작품에서의 갈등이란 등장인물들 사이에 얽혀진 복잡한 관계를 말합니다. 즉 목표나 리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포오샤는 어떤 상황에서 등장하였으며 어떻게 극중의 모순갈등을 해결하였습니까? 이로부터 그의 어떤 성격특점을 알 수 있습니까? / 2. 이 극본의 대사(인물의 언어)는 개성이 뚜렷하며 생동하고도 형상적입니다. 사일록의 다음 말을 음미하면서 그의 심리와 성격특징을 파악해봅시다.(중략) / 3. 인물의 개성특징을 살려 이 극을 배역독해 봅시다. <학습 활동>(의무교육 『조선어문』 9학년 하권, 143면)
---

교수참고서에서는 위의 문항에 대한 구체적인 교수 지침서를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의 경우는 희곡의 갈등 파악과 해결 과정을 묻는 문제로서, 특히 포오샤의 성격을 통해 답하도록 하고 있다.<sup>43)</sup> 여기에서 다룬 아닌 포오샤를 주시한 것은 그가 ‘이상적 인물’, 즉 갈등의 해결사로서 역할을 감당한다는 점에서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의 경우에서는 “언어의 개성화와 인물의 성격적인 특징을 체득케 하려는” 목적에서 설계한 문제<sup>44)</sup>라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는 희곡의 주요소인 ‘대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는데, 이것은 희곡 언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학습 활동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 셋째의 경우는 낭독하기 활동으로서, 배역독을 통해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인물의 개성을 보다 잘 파악케 하려는 데서 설정한 문제라 밝혔다.<sup>45)</sup>

43) <베니스의 상인>(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12면)

44) <베니스의 상인>(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12면)

그런데 위의 교과서 학습 문제에는 교수 목표에서 보인 문종 바꾸기 학습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수 시에는 이미 배운 소설 가운데서 한 편을 골라 극본으로 고쳐 쓰기를 지시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무대설명’, ‘인물의 대화’ 등을 극본 작법의 기본 요소로 들고 이에 부합하는 쓰기(습작)를 지도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교수건의’란을 따로 두어 “역할놀이 학습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교육 내용을 추가하고, 실제 교수 시에는 배역을 정하여 “연극놀이”를 해 보도록 극화학습을 유도하기도 했다.<sup>46)</sup>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된 교수 내용은 『변론』이라는 소위 “입말교재”와 연계시켜 지도하는 것이다.<sup>47)</sup> 즉 토론의 논제 설정, 찬반 입장 나누기, 토론하기 등의 토론 학습과 연계되고 있다. 이것은 극 내용이 법정 토론 장면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학습 과정에서 <베니스의 상인>은 읽기(갈등의 이해 및 성격 파악), 쓰기(문종 다르게 쓰기), 말하기(변론), 극화학습 등 다양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원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한 잎>은 『조선어문』 수록 제제 중 유일한 시나리오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 단원은 오 헨리의 단편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총 29개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작품 또한 널리 알려진 것으로 화가 베어먼과 그를 사랑한 여류화가 존시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이다. 베어먼에게 실연당한 존시는 폐렴에 걸려 병이 악화되나, 창 밖의 마지막 한 잎으로 인해 죽음을 극복하게 된다. 이 잎은 베어먼이 그린 그림으로서 그는 담쟁이 잎을 그리다 오히려 사고사로 죽음을 맞게 된다. 이 소설은 시나리오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원작과는 다르게 변경된 부분도 있으나, 작품의 주제나 내용 등 전체적인 골격은 크게 변함이 없다.

45) <베니스의 상인>(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14면)

46) <베니스의 상인>(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38면)

47) ‘입말교재’는 화법 관련 교재라 할 수 있다(<베니스의 상인>,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104면).

<마지막 한 잎>은 앞서 살핀 <베니스의 상인>과 함께 5단원의 ‘자기 절로 해보기’에 제시된 극본이다. 그러므로 학습 활동 또한 작품 속에 나타난 갈등과 성격, 인물의 심리 변화 등을 파악하는 대단원 학습 목표와 부합된다.

【표 8】 <마지막 한 잎> 학습 활동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 글에서 갈등은 어떤 사건을 통하여 심화되고 있습니까?</li> <li>2. 이 글에서 베어먼의 성격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구절을 찾아봅시다.</li> <li>3. 이 글을 인물들의 성격과 구체적 장면이 맞게 배역독하여 봅시다.</li> </ol> <p style="text-align: right;">&lt;학습 활동&gt;(의무교육 『조선어문』 9학년 하권, 167면)</p> |
|--|

교수참고서에서는 학습 문제 설정 의도 및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1번의 경우는 시나리오에서의 갈등을 파악하고 주제를 개괄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문제라 밝히고 있다. 2번에서는 시나리오의 해설, 지문, 대사 등 표현상의 문제(전형적인 구절)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과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케 하려는 데 있다고 제시하였다. 즉 이 문제는 시나리오 장르의 형식적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성격과 상황을 파악케 하려는 데 있다. 마지막 3번에서는 학생들에게 배역을 맡게 하고 조별로 연습한 후, 배역독을 시키라는 지침 내용을 보이고 있다.<sup>48)</sup> 이러한 일련의 학습은 시나리오의 장르적 특성 이해, 갈등과 인물의 성격 파악, 배역독 등을 실행하는 활동이라 정리할 수 있다.

### 3.2.2. 고급중학교 『조선어문』(필수 4) 수록 극문학: <인형의 집>, <뢰우>

앞서 교재의 특징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급중학교 『조선어문』(필수4)은 ‘열독과 감상’, ‘표달과 교류’ 등 2개의 대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열독과 감상’의 제4단원 희곡세계에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과 조우의 <뢰우> 등 2편의 희곡이 수록되어 있다.

48) <마지막 한 잎>(의무교육 『조선어문 교수참고서』 9학년 하권, 33면)

(13) 이 단원에는 중의 희곡 2편이 수록되었는데 한편은 근대사실주의 희곡의 창시자로 추앙되는 노르웨이 입센의 대표작 <인형의 집>이고, 다른 한편은 중국 당대 저명한 희곡가인 조우의 대표작 <퇴우>이다. <인형의 집>은 안해이고 어머니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살겠다고 부르짖는 “새로운 유형의 여성(新女性) 노라의 인간적인 각성과정을 그려냄으로써 근대 여성해방운동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 작품이라면 <퇴우>는 중국 희곡(活劇)을 력사상 최고 전성기로 끌어올린, 중국 현대희곡의 성숙을 표징하는 작품이다.

<단원의 길잡이> 『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28면)

위의 내용은 교수참고서의 ‘단원의 길잡이’에서 단원 설정의 이유를 든 부분이다. 인용문에 따르면, <인형의 집>은 근대 희곡의 창시자라 불리는 입센의 대표작이자, 근대에서 새로운 여성상을 제시한 작품으로 여성해방운동에 영향을 끼친 희곡이다. <퇴우>는 조우의 작품으로 근대 희곡의 대표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이 작품은 계급갈등의 문제를 치밀한 구성으로 전개해 작품성이 돋보이는 희곡이라 평가받고 있다.<sup>49)</sup> 두 단원은 이러한 가치매김으로 인해 교과서 단원에 도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두 단원의 학습 목표는 크게 극적 갈등의 이해와 언어를 통한 성격 파악으로 제시되고 있다.<sup>50)</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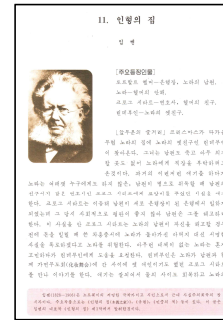
<인형의 집>은 원래 총 3막 31장으로 구성된 희곡이다. 그런데 『조선어문』(필수4)에서는 1막과 2막은 줄거리 소개로 요약하고 3막만을 실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여주인공 로라가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하려는 과정을 담겨 있다. 이 단원의 학습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49) <퇴우> 『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33면, 140면)

50) “희곡단원의 학습에서 개성적인 인물의 언어를 참담게 음미할 줄 알아야 하며 극중 인물의 성격이 어떻게 다양한 모순갈등 속에서 변화발전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28면)

【표 9】 <인형의 집> 학습 활동

1. 1987년에 처음으로 공연된 희곡 <인형의 집>은 여주인공 노라가 남성에게 종속된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의 인간으로서 독립하려는 과정을 묘사하여 여성해방운동에 큰 영향을 준 작품이다. 이 작품을 실례로 희곡은 인물형상부각에서 소설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를 밀해보라. / 2. 희곡작품에서 인물들의 성격은 상호간의 모순과 갈등 속에서 펼쳐지게 된다. 이 과문에서 주요한 모순갈등은 무엇이며 그 모순갈등의 실질은 무엇인가? / 3. 한 사람은 “남녀평등이란 남성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여성도 할 수 있다는 말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이 옳은가? 남녀평등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말해 보자.  
<학습 활동> 『고급중학교 『조선어문』(필수4), 70~71면)



【그림 7】 <인형의 집> 『조선어문』(필수4), 55면)

교수참고서에서 밝힌 ‘문제설계의도’에 의하면, 1번 문항은 학생들에게 소설과의 비교를 통해 희곡의 특징을 파악케 하려는 문제이다. 희곡과 소설은 모두 인물 형상을 통하여 주제를 반영하는 문학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면서도 형식적인 측면에서 차이점을 지닌다. 즉 희곡은 무대 예술로서, 희곡에서의 인물 형상은 작자의 개입이 없이 등장인물의 대사(등장인물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표현된다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 교수참고서에서는 이것이 1번 문항의 주요 학습 활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2번 문제는 학생들로 하여금 희곡에서 갈등의 요소와 그 기능에 대해 알게 하려는 데 있다. 마지막 3번은 남녀평등에 대한 학생들 각자의 견해를 말하게 함으로써 작품에서 얻는 교훈(주제의식)을 자각케 하려는 것이다.<sup>51)</sup> 이를 보면 <인형의 집>은 희곡 장르의 이해, 인물의 성격과 갈등의 파악, 작품의 주제 파악이 주요 학습 활동이라 하겠다.

<퇴우>는 1930년대에 쓰여진 4막의 장막극이다. 계급갈등을 다룬 이 작품은 자본가 주박원의 가정 내부의 갈등상, 주씨(주박원)와 로씨(로시

51) <문제설계의도> 『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35~136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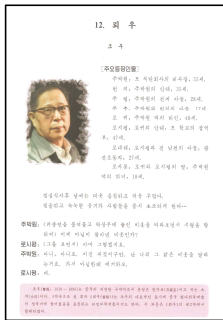
평) 두 집안 간의 외부 갈등상 등이 주축을 이룬다. 이를 통해 주씨 가정의 도덕적 허위성, 노동자 계층의 반항 정신 등을 드러내고 있다.<sup>52)</sup> 『조선어문』(필수4)에는 2막만이 수록되었는데, 노동자 대표인 로대해가 등장하여 주박원의 위선을 드러내면서 계급적 대립이 첨예하게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 단원의 학습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10】 <퇴우> 학습 활동

1. 이 희곡에 나오는 주박원, 로시평, 로대해의 인물 성격을 분석하라. / 2. 희곡의 읽음새는 흔히 등장인물들의 대사에 의해 엮여진다. 과문에서 주박원이 로시평을 알아보기 전과 알아본 후의 몇 개 대사를 찾아 이 대사들에서 주박원의 어떤 심리가 표현되고 있는가를 지적하라.

<학습 활동>(고급중학교 『조선어문』(필수4), 84면)



【그림 8】 <퇴우>(『조선어문』(필수4), 72면)

교수참고서는 이 단원에 대해 <문제탐구>란을 두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학습의 주안점을 밝히고 있다. 그 내용에 따르면 1번의 경우는 작품에 등장하는 세 주요 인물(주박원, 로시평, 로대해)의 성격을 파악하고, 이 극에서 가장 본질적인 갈등이 무엇인가를 탐구하는 문제이다. 갈등은 희곡의 주요 요소로서 주로 극중 인물의 성격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성격은 그들의 사회적 지위(계급), 문화 소양, 생활 환경 등의 영향 속에서

형성되며, 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설명한다. 결국 서로 상인한 성격 때문에 “모순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sup>53)</sup>

52) <과문연구>(『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40~147면)

53) “이 극에서 보면 주박원은 로대해와의 계급적 모순이 있는가 하면 또한 번의, 주평, 주충 등과 정성원 간의 갈등이 있으며 그런가 하면 시평을 대하는 데서 일어나는 마음속 갈등도 있는데, 이러한 모순들이 공동으로 작용하여 주박원의 성격이 복잡한 인물로 되게 하면서 주위의 인물들과 여러 가지 극적갈등을 일으키게 한다”(『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47면)

2번은 특정 대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특히 <문제탐구>에서는 “로시평에 대한 주박원의 감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인물의 심리 변화를 탐구하도록 유도하고 있다.<sup>54)</sup>

교수참고서에서는 이 단원의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서 희곡 감상법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14) [희곡감상에 대하여] · 무대 상연을 목적/ · 극적갈등은 사회의 여러 가지 모순을 드러냄(사회모순의 반영)/ · 언어는 극본을 구성하는 기초 / · 인물의 개성화한 언어를 잘 음미/ · 언어의 풍부한 잠재사(潛臺詞)를 잘 음미/ · 갈등을 이해하고 언어를 음미한 기초에서 인물형상을 감상할 줄 알아야/ · 극적 읽음새의 발전에 따라 발전 변화하는 인물의 성격을 이해

<희곡감상에 대하여>(『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51~153면)

위의 내용은 <퇴우>를 통해 희곡 감상, 즉 희곡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읽기 방법론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무대를 상징한 희곡의 형식적 특성과 플롯, 성격, 갈등을 이해하는 것인데, 이는 희곡 감상의 일반적인 읽기 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 3.2.3.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수록 극문학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는 기타 해외극 및 중국극이

54) “주박원은 로시평이 죽었다고 여겼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시평을 그리는 마음을 나타내다가도 시평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그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는다.(중략) 여기서 알 수 있는 바 주박원이 시평을 그리워한데는 일정한 감정이 있었지만 그 감정에는 전제조건이 있다. 그것은 곧 자기의 명예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쳐서는 안된다는 조건이다”(『조선어문 교수참고서』(필수4), 147~148면)

수록되어 있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택편에서는 국내외 작품을 망라하여 시기별로 대표작을 수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룬 극본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몰리에르의 <수전노>,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 해럴드 핀터의 <병어리 웨이터>,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등 서구 희곡 6편과 관한경의 <두아원>, 로사의 <차집> 등 중국극 2편으로 총 8편이다.

앞서 밝혔듯이 ‘선택 희곡감상은 극본 제시 후 작품에 대한 설명인 <리해와 감상>, 간단한 학습 문제를 제시한 <사고와 탐구>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선택 지도하는 교재라 따로 교수참고서가 없다. 그런데 위의 수록 상황을 보면 중국극 외에 서구 희곡은 이미 널리 알려진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새롭게 대하는 중국극에 한해서만 작품 내용을 살피고, 기타 작품에 대해서는 <리해와 감상>의 작품 소개 중 특징적인 사항만을 살피고자 한다. <사고와 탐구> 또한 각 작품에 대한 학습 문제를 제시하고 주목할 내용만을 요약적으로 정리하겠다.

먼저 <오이디푸스 왕>에 대해서는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고대 희랍인들의 독특한 세계관을 드러낸 수작이라 평하고 있으며, 특히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오이디푸스(인간의 의지)가 비극적 운명과 갈등하면서 극적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sup>55)</sup> <로미오와 줄리엣>에서는 셰익스피어 희곡의 특징을 적용하여 작품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전형적 인물의 창조, 둘째, 플롯의 생동감과 풍부함, 셋째, 대결 구도의 명확성과 희극과 비극의 명료성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sup>56)</sup> <수전노>에 대해서는 ‘성격희극적 측면과 극적효과를 부각시키는 기법 등을 들어 작품의 의의를 밝혔고,<sup>57)</sup> <느릅나무 밑의 욕망>에서는 ‘골드러쉬’가 시작된 미국의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배경으로 언급하면서 자본주의에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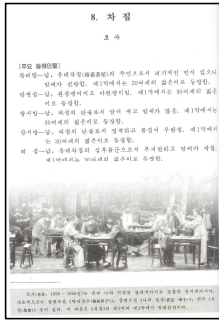
55) <오이디푸스왕>(『조선어문』(필수4), 25~26면)  
56) <로미오와 줄리엣>(『조선어문』(필수4), 84~85면)  
57) <수전노>(『조선어문』(필수4), 106~107면)

한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주며, 제목과 공간적 배경이 상징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다.<sup>58)</sup> <병어리 웨이터>에서는 작품의 부조리극적 특징을 밝히면서 “침묵”과 “분위기”를 통해 의사소통의 불가능성을 잘 드러낸 작품이라 평하고 있다.<sup>59)</sup> <세일즈맨의 죽음>에서는 미국에서 아서 밀러의 극작가로서의 위상을 밝히면서, ‘동시무대’의 설정, ‘제4의 벽’을 파괴한 연극기법, 모티브들의 적절한 활용 등 기법적 측면에서 작품의 의의를 밝히고 있다.<sup>60)</sup> 이러한 일련의 작품 소개를 보면, 제시된 희곡들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그대로 설명하는 내용들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중국극인 <두아원>과 <차집>을 보면, 전자는 중국에서 “원곡 4대가”이자 “희곡성인”이라 불리우는 관한경의 대표작으로서 중국 고대 비극의 백미로 꼽히는 작품이다.<sup>61)</sup> 이 단원의 <리해와 감상>에 따르면, <두아원>은 중국 ‘열녀전’의 하나인 <동해효부>라는 고전을 소재로 한 희곡이며, “현실주의와 낭만주의의 완미한 결합”으로 창작기법상 미학적인 완성도가 높은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sup>62)</sup> 주인공은 두아라는 여성으로서 그녀는 아버지 두천장의 빚 대신 채권자의 며느리로 팔려가는데, 시어머니를 살해했다는 누명으로 사형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후일 과거에 급제한 두천장이 고향에 돌아와서 진범 장려아를 찾아내 그 원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이다.

<차집>의 작가 로사는 본명이 서경춘(舒庚春)으로 1953년 ‘북경시인민정부’에서 “인민예술가”라는 칭호를 수여받을 만큼 중국 현대문학사상 대표적인 작가이다. 이 작품은 북경의 한 차집을 무대로 하여 쇠락해가는 청조 말기, 북양군벌이 권력을 장악하던 중화민국 초기, 국민정부의 붕괴 시기 등 격변기의 사회상을 다루고 있다. 등장인물이 60여명에 이르며 각

58) <느릅나무 밑의 욕망>(『조선어문』(필수4), 154~155면)  
59) <병어리 웨이터>(『조선어문』(필수4), 226~227면)  
60) <세일즈맨의 죽음>(『조선어문』(필수4), 226~227면)  
61) <리해와 감상>(『조선어문』(필수4), 41면)  
62) <리해와 감상>(『조선어문』(필수4), 41~43면)



【그림 9】 <차집> 『조선어문』(필수4, 156면)

시기별로 옴니버스식 구성을 취한 역사극이다.<sup>63)</sup> 해외극 및 중국극의 수록 상황을 보면, 해외극은 다양한 갈등상과 기법을 보여주며, 영미 희곡의 대표작 위주의 수록상을 보인다. 중국극 외에 여타 아시아 지역 작품은 다루지 않고 있다. 이것은 서구 극문학에 대한 편향성을 드러내는 측면이다. 또한 중국극의 경우는 사회주의 국가다운 계급(계층) 갈등이 지배적인 작품으로 이념성이 중시된 희곡들이다. 그런데 이 유형의 극본은 2편에 불과해 가장 적은 빈도를 보이는데, 이것은 조선어 교육 외에 중국 문학 교육에서 여타 작품을 다루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추정된다.

<사고와 탐구>에서 각 작품의 학습 문제는 아래와 같이 제시되고 있다.

【표 11】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학습 활동

번호	단원명	<사고와 탐구> 학습 문제
1	오이디푸스왕	극적 아이러니란 무엇인가? 이 작품에서 극적 아이러니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26면)
2	두아원	‘원곡 4대가’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과문을 실례로 원대(元代)희곡의 특징을 말해보라.(42면)
3	로미오와 줄리엣	과외로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을 더 찾아 읽어보고 과문의 내용과 연계시켜 셰익스피어 희곡의 특징을 말해보라.(85면)
4	수전노	세계 문학사에서 ‘4대 수전노’는 어떤 인물들을 가리키는가? 아르바공과 그랑데 영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라.(107면)
5	느릅나무 밑의 욕망	이 작품에서 보여진 19세기 말 미국의 사회상과 유진 오닐 희곡의 특징을 말해보라.(155면)
6	차집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과 비교하여 볼 때 로사의 차집은 창작기법상 어떤 다른 점이 있는가를 말해보라.(178면)
7	빙어리 웨이터	부조리극이란 무엇인가? 이 작품을 실례로 부조리극의 특징에 대하여 말해보라.(203면)
8	세일즈맨의 죽음	과문을 실례로 아서 밀러가 ‘사회주의적 작가’, ‘도덕주의자’라고 불리우게 된 이유를 말해보라.(227면)

63) <차집> 『조선어문』(필수4, 156~157면)

위의 문제들을 보면, 개별 작품의 성격에 따라 기법적 특징을 묻거나, 작가나 주제 등을 탐구하는 내용들이다.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은 교재의 성격상 지역별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 선택 여하가 자유로운 과목이다. 또한 필수 과목과 다르게 주로 감상이 주가 되고 학습 활동은 교수자의 재량에 따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민족극에서 살핀 조금란(2009), 정향란(2012) 등에서 보인 교사들의 교수 방법의 예는 바로 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고와 탐구>의 학습 문제가 간략하게 제시된 것은 이와 상관된다고 하겠다.

#### 4. 맺음말

이 연구는 해외 동포인 조선족의 극문학 교육의 현황을 살펴본 것으로서, 특히 조선족의 국어교육 교재인 『조선어문』을 대상으로 극문학 제재 수록 양상 및 학습 활동을 고찰하였다. 분석 텍스트는 현재 조선족이 사용하는 2007년 개정판 『조선어문』으로서, 전 학년 교과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여기에 각 권의 『교수참고서』를 참고하였다. 실제 분석에서는 극문학의 성격상 1. 민족극, 2. 해외극, 3. 기타 중국극 등 유형별로 고찰하였으며, 분석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조선어문』 교재의 특징 및 극문학 제재의 유형에 대해 살폈다. 둘째, 이를 토대로 『조선어문』의 극문학 내용 및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특히 민족극은 민족의 동질성을 토대로 서로 상관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한민족 상호 영향 관계를 주시하였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

2007년 조선어문 교육과정(<조선어문과정표준>)은 변화된 사회 환경에 부합되는 조선어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면서, 한국의 제7차 국어교육과정을 참고로 하여 새롭게 개정되었다. 이 교육과정에서 새로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바로 학습자의 주체적인 국어 생활이다. 이는 제7차 교육과정과 같이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을 중시한 결과이다. 조선어 교육과정의 개정 에 따라 민족교육의 단일 교재인 『조선어문』도 새로운 교수요목에 의해 개편되었다. 학습자의 주체적 학습을 보장하고, 나아가 '창의적 국어 능력 향상'을 기하려는 교육 목표가 교과서 구성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즉 '종합성학습'을 통한 응용학습 등은 단원 학습 후 학습자의 주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성 체제이다. 고급중학교 필수 과정 『조선어문』의 경우, '열독과 감상'에서 체험성·탐구성 학습 활동을 배치하고, '표달과 교류'에서 학생들이 선택적인 학습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명작열독추천', '부록' 등은 '자기절로 해보기'라는 자기주도 학습으로 학생들의 독서 습관과 감상 수준을 스스로 높이고, 향후 사회생활을 위한 응용문제를 다루고 있다. 선택 과정인 <희곡감상> 편에서도 토론식 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보면 학생들의 주체적인 학습 활동을 적용한 교과서 구성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형별 수록상 및 학습 활동을 보면, 첫째, 민족극은 민족의 동질성을 보이는 고전 소재의 극과, 기타 조선족·한국·북한 등 한민족이 창작한 극문학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한민족 극본 체제의 상호 연관성을 주시하며 살펴보았다. 특히 개편된 『조선어문』은 국내의 7차 교육과정기를 답습하여 교육 체제를 재편하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교재로서 그 영향 관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민족극은 장르상 희곡, 방송극, 음악극(뮤지컬, 가극) 등으로 대별되는데, 희곡 <벼씨 한알>, <토끼전>, <봉산탈춤>의 경우는 국내 국어 7차 교과서 체제의 재수록본에 해당된다. 학습 활동에서도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하나, 7차 교육과정기 교과서 학습 활동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양상을 띤다. 이에서 국내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은 조선어 교육의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제제 선정 및 학습 활동 등에도 영향을 끼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극문학 분야만을 통해 이를 드러냈지만, 여타 장르의

경우에도 국내 국어과 교육과 상관성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따로이 논구하여 그 실상을 밝힐 부분이기도 하다.

기타 <토막>은 유치진의 '농촌 3부작'에 속하는데, 국내의 경우 교과서에 수록된 유치진의 작품은 주로 충효나 반공의식을 주체화한 경우이다. 이와 달리 『조선어문』에는 지주와 소작농의 갈등상, 즉 계급갈등이라는 측면에서 작품을 선정하고 있어 주제의식면에서 차별된다.

한편 방송극 <어머니께 드리는 곡>은 조선족 작품으로 『조선어문』에서 유일한 방송극이다. 기타 뮤지컬 <명성황후>, 가극 <꽃 피는 처녀>는 모두 최근 창작된 작품으로, 각각 조선극, 한국, 북한에서 창작된 음악극 장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세 작품은 감상을 주요 학습 목표로 삼은 선택 과정에 실려 있어 간단한 학습 활동만이 드러난다. 이로 인하여 교사들의 자율적인 재량 수업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둘째, 해외극의 경우 의무교육에는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 오 헨리의 <마지막 한 잎> 등 2편이 수록되어 있고, 고급중학교 필수 과정에는 헨리 입센의 <인형의 집>이, 선택과정에는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몰리에르의 <수전노>,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 해럴드 핀터의 <병어리 웨이터>,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 등 7편이 실려 있어 총 9편이다. 중국극은 고급중학교 필수 과정에 조우의 <퇴우>와 선택 과정에 관한경의 <두아원>, 로사의 <차집> 등 3편이 실려 있다.

고급중학교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에는 기타 해외극 및 중국극이 수록되어 있다. 해당 작품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왕>, 관한경의 <두아원>(고대희곡),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 몰리에르의 <수전노>(근대희곡), 유진 오닐의 <느릅나무 밑의 욕망>, 로사의 <차집>, 해럴드 핀터의 <병어리 웨이터>(현대희곡), 아서 밀러의 <세일즈맨의 죽음>(당대희곡) 등 서구 희곡 6편과 관한경의 <두아원>, 로사의 <차집> 등 중국극 2편으로 총 8편이다.

해외극 및 중국극의 수록 상황을 보면, 해외극은 유형별 수록 빈도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드러낸다. 다양한 갈등상과 다양한 기법을 보여주며, 영미 희곡의 대표작 위주의 수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여타 아시아 지역 작품은 다루지 않아 서구 편향성을 드러낸다. 또한 중국극의 경우는 계급(계층) 갈등이 지배적인 작품으로 이념성이 중시된 희곡들이다. 한편 선택 과정은 선택 지도와 감상 위주, 교사의 자율성이 허용된 과목이라는 점에서 <사고와 탐구>란에 간단한 학습 활동만이 보인다. 개별 작품의 성격에 따라 기법적 특징을 묻거나, 작가나 주제 등을 탐구하는 내용들이다.

지금까지 『조선어문』을 통해 조선족 모국어 교육에서 극문학 교육의 현황을 고찰하였다. 그간 조선족의 국어교육, 특히 『조선어문』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 전 학년 극본을 대상으로 분석을 가한 경우는 드물다. 이에 본고에서는 2007년에 개정된 교재를 대상으로, 극문학 전반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극문학 제재만을 한정적으로 분석한 것이나, 이를 통해 우리와 한 민족인 조선족의 모국어 교육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그 실상을 일부나마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작업이 향후 관련 연구 영역의 지평을 넓히는 토대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기본 자료

- 연변교육출판사,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제1권~제9권), 연변교육출판사편집실편저, 2007.
- 연변교육출판사,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 교수참고서』(제1권~제9권), 연변교육출판사편집실편저, 2007.
- 연변교육출판사, 『고급중학교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필수4권), 연변교육출

판사편집실편저, 2007.

연변교육출판사, 『고급중학교조선족학교교과서 조선어문』(선택 희곡감상), 연변교육출판사편집실편저, 2007.

### 2. 단행본

- 교육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0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10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6.
-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91.
- 독립기념관 외, 『북간도 한인의 삶과 애환, 그리고 문화』, 동북아역사재단, 2008.
- 심상용, 『간도 비극의 땅 잊혀진 영토』, 아우누리, 2013.

### 3. 논문

- 윤금선, 「미주 지역 한인의 국어교육 전개양상 - 일제강점기 하와이를 중심으로」, 『語文研究』 제73집, 어문연구학회, 2013.
- \_\_\_\_\_, 「동북아시아 지역 해외 한인의 모국어 교육 활동 연구 - 중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국어교육연구』 제52집, 국어교육학회, 2013.
- 이형관, 「革命을 주제로 한 北韓 映畵 연구 : 피바다, 꽃 피는 처녀, 소금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논문, 1998.
- 이흥남, 「우리나라와 중국 연변 조선족의 초등(소)학교 미술교과서 중 감상영역에 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석사논문, 2002.
- 정향란, 「희곡감상에서의 몇 가지 감상방법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제181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2.
- 조금란, 「영상매체를 활용한 희곡열독감상」, 『중국조선어문』 제163호,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09.
- 조유리, 「중한 초등학교 국어 교과서 내용의 비교와 분석」,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2011.
- 韓恩淑, 「한국어린이연극의 발달과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4.

Abstract

A Study on Aspect of Contents in Chosun-Eomun

-Focused on the dramatic literature-

Yeun, Keum-sun

This research examines tendency of how the dramas are included on Chosun-Eomun which is Korean textbook of Chosun-jok and its learning activity.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investigating how the drama is learned in Korean education of Chosun-jok. The revised edition of Chosun-Eomun in 2007 is analyzed in the research, and textbooks of every grade are aimed. The analysis can be divided into two ways. The first one describes a character of Chosun-Eomun and types of the dramas on the book, and the next one actual situation in the text book and learning activities of the textbook.

Chosun-Eomun, unitary textbook of the national education has been changed as the information-oriented age has arrived in 21st Century. Especially, It is interesting that revised edition of Chosun-Eomun in 2007 refers to ‘The Standard of Literary Education of Chosun’ and 7th Curriculum Period of Korea.

The dramas is divided into national play, foreign play, and Chinese play. National play is composed of plays, broadcast plays, musicals, operas. In the case of plays in textbook, it can be seen that several chapters borrow scripts and questions from textbooks of Korea. This is because they followed Korean education curriculum of Korea.

Musical plays such as broadcast plays, musicals, operas are major works which are written by Chosun-jok or i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number of these plays is only one of each genre. British and American dramas account for most of foreign plays,

and they occupy the highest proportion of the whole of scripts. It is distinguishing feature that most of foreign plays are included in selective curriculum.

Key words : Korean education, Chosun-jok, Chosun-Eomun, The Standard of Literary Education of Chosun, 7th Curriculum Period, dramatic literature, actual situation in the text book, learning activities

접수일: 2014년 7월 31일  
심사기간: 2014년 8월 9일~8월 24일  
게재결정: 2014년 8월 29일